

한영교회 온가족예배

11/27(월)~12/2(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오, 주님이 옵니다

[요기 21:17-3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21:17-34]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반드시 벌 받는다는 말은 옳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악인이 벌 받고 의인이 복받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친구들에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악인이 멸망하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2. 주님께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셔야 한다'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인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 일이 불합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기에 감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하고 불경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3. 주님의 뜻을 배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의 생각을 알고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고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정죄하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욥이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하고 말할 정도인데, 그들은 외면하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스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신중하게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시다. 이것이 성도의 관심입니다.

- 나눔**
1.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2. 최근에 가장 관심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은 늘 옵니다."라는 고백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정죄를 정지하라

[요기 22:1-30]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22:1-30]의 말씀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며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에게 오인 폭격이니 당장 중지하라고 교신을 보내도 그는 이미 교신을 끊은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폭격이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정죄할 자격 사람이 의로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으며 사람의 행위가 온전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진리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너도 죄인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막장 논리를 펴 나가고, 그것을 또다시 인과응보 논리로 연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진리가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며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망각하면 다른 죄인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퍼부으라는 사탄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2. 정죄의 내용 엘리바스는 무차별 폭격을 퍼부으라는 사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욥이 당하는 환난의 크기를 보면서 욥이 지은 죄의 크기를 한산해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은 약이 아닌 독이었습니다. 타인의 죄를 억측하며 정죄하는 것은 영혼 깊숙이 치명적인 사탄의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부리는 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는 죄의 억측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가 있어도 그의 죄를 추측해서 한산해 내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폭격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폭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3. 정죄의 결과 억측하며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를 정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 6:37).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쏟은 비판과 정죄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야 하며, 죄인인 사람에게에는 비판하며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비난과 정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나눔 1. 누군가를 향해 정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2.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대로 정죄하신다면 어떨까요?

기도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사랑

[요기 23:1-17]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23:1-17]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1. 끝까지 들으신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찾아 헤매지만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없습니다. 해수욕장이나 놀이동산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울며불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금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욥과 같이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2.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찾던 욥이 갑자기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잠시 홀로 있게 하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해주십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잠깐 홀로 남겨진 것같은 느낌이 든다고 어찌 지금까지 그분을 따라 걸어온 순종과 헌신의 삶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변치 말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때가 바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끝까지 신뢰하라 해가 지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다려 보려 했던 마음이 조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홀로 지낼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돌아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어둡고 캄캄한 곳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떨고 있는 우리 옆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어두워서 그분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눔 1.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렸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2.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눠봅시다.

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의지하게 하소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요기 24:1-25]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24:1-25]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악인은 번성하고 악한 자는 억울한 일을 겪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악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1. 어둠에서 빛으로 욥은 악인이 빛을 피해 어둠 속에서 악행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악하고 가난한 자를 죽이고, 몰래 간음하며, 어둠을 틈타 강도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심판도 행하지 않으시며,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버려 두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빛이 왔지만 악인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빛으로 오셨음에도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른 채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2. 급속하고 철저한 심판 욥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물에서 거품이 사라지듯이, 더위에 눈이 녹듯이 심판은 급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부렸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처참하고 완벽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권세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뿌리째 뽑혀 날아갈 뿐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악인의 번성함에 낙심이 됩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대신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3.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악인의 악행을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게다가 그들의 악행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유지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로잡아 잘려진 곡식 이삭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합니다.

나눔 1. 주 안에 거하며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 최후 승리를 믿고 심판과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욥기 25:1-26:1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25:1-26:14]의 말씀입니다.

우주의 신비에 대해 아십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천체가 움직이기에, 우리는 달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하나님을 힘써 알아 갑시다 빌닷의 세 번째 연설에서 달라진 것이라곤 분량이 짧아진 것뿐입니다. 빌닷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욥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고, 욥의 말을 경청하려는 태도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몇 가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랑과 공화로 형제를 돕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됩니다.

2.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존재하고 운행하는 천체를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돌보십니다. 삶에 찾아오는 괴로운 일이나 억울한 일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과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3. 흠 안에 피어난 존귀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해와 달이 빛을 잃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며 죽어서 흠에 돌아갈 운명입니다. 부와 권세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은 후 사람은 구더기와 벌레에 몸을 맡기고 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눔 1. 나는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무엇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2.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기도 온 우주를 한 치의 오차 없이 통치하시는 주님 흠인 우리 인생도 자녀 삼아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요기 27:1-23]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27:1-23]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시험받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과 달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거나 약자를 외면하는 일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더 나은 미래와 번영을 줄 수 있다고 여기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번영할지라도 죄로 인한 고통과 배고픔과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2.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신자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시듯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까지 책임지시기에 신자는 재물을 축적해서 미래를 설계하거나 호화로운 주택을 뽐내며 마음의 평정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죄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재물과 집을 의지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3. 영생을 바라보면서 신자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순간이요 찰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죄인은 휘몰아치는 폭풍이나 뜨거운 열풍에 사로잡히듯 고통과 두려움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해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없이 힘껏 던져 버리시기에 바위에 던져진 계란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겪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비웃음을 당하는 죄인,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린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 나눔**
1.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2. 하루의 품삯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기도 하나님 이 땅 위에 서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봅니다.